

고려 태조 왕건의 용주전투와 신라 멸망*

김 명 진**

- I. 머리말
 - II. 용주의 역사·지리적 배경
 - III. 927년 용주전투 과정과 신라 경애왕의 의도
 - IV. 용주전투 이후의 판세와 신라 멸망
 - V. 맺음말

국문초록

927년(고려 태조 10) 정월에 발생한 용주전투를 주목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용주는 현 경북 예천군 용궁면과 그 인접 지역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고려와 신라를 연결할 수 있는 요충지에 용주(용비산성)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용비산성은 천혜 요새 지형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다. 둘째, 용주전투는 통일전쟁기에 특이 유일한 사례를 남겼다. 고려군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후백제군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월 명절에 기습 공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전투 택일이 절묘했던 것이다. 셋째, 견훤은 국면전환을 위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8S1A5B5A07072614)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22mjk@hanmail.net

서 신라도성인 금성(경북 경주)을 쳐들어가 경애왕을 죽게 만들었다. 이는 용주전투 시 경애왕이 고려군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용주전투는 신라 멸망을 재촉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 주제어

왕건, 견훤, 경애왕, 용주전투, 신라 멸망

I. 머리말

고려 태조 왕건(高麗 太祖 王建)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제가 ‘927년 용주전투(龍州戰鬪)’였다. 왕건은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에 걸친 대분열의 시기를 통일로 마감하였다. 그가 최종 승자가 됨에 모든 행위를 무력으로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의 근본 특징은 전쟁으로 승부를 가리던 때였다. 그런 점에서 실제 무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던 여러 전투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그 중요성을 감추고 있었던 전투가 있었다. 927년 용주전투가 그것이다. 용주(龍州)는 현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과 그 인접 지역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927년(고려 태조 10) 정월에 왕건이 직접 고려군을 이끌고 용주를 정벌하였다. 당시 이곳은 후백제의 영역이었다. 이때 신라 경애왕이 출병(出兵)하여 고려군과 함께 후백제군을 무너뜨렸다.¹⁾ 이는 통일전쟁기에 유일한 고려와 신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후백제군을 공격한 전투였다.

고려 통일전쟁기 전쟁사(戰爭史)의 관심은 주로 궁예와 견훤의 혈투, 왕건과 견훤의 혈투 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신라 경애왕이 관여한 고려·신라 연합군과 후백제군의 혈투인 용주전투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가 직접 원인이 되어 신라 멸망을 재촉하지는 않았으나 하는 의구심이 본 연구 유인 요소이다. 용주전투가 벌어지고 같은 해에 견훤이 신라도성(금성, 경북 경주)을 정벌하여 경애왕을 사망케 했으므로 이러한 의구심은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통일전쟁기 전쟁사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성과로 인하여 종합적인 결과물들이 계속 이어졌다.²⁾ 그런가하면 당시 용

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춘정월 을묘.

2)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해안, 2016;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해안, 2008; 김명진, 『고려

주전투와 지역적 연관성이 있는 현 경북일대에서 벌어진 개별전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물군전투(경북 내륙의 어느 곳)³⁾ · 공산동수전투(대구 팔공산 동화사 일대)⁴⁾ · 고창군전투(古昌郡戰鬪, 경북 안동)⁵⁾ 등이 그 연구 대상이었다. 한편 선행연구는 신라 멸망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⁶⁾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성과에 힘입어 고려 통일전쟁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의문점이 해소되었다. 신라멸망에 대한 연구도 그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용주전투는, 특히 그 신라 멸망과의 관계는 해명 시도도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주가 어떠한 역사·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리하려 한다. 이는 논지 전개를 위한 기본 이해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작업은 927년에 용주에서 고려·신라 연합군이 후백제군과 싸웠는데 신라 경애왕의 참전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용주전투 종결 이후의 전쟁 판세는 어떠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용주전투가 어떻게 신라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감추어진 사실이 궁금하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통일과 전쟁, 고려 태조 왕건』, 해안, 2018.

- 3) 류영철, 「曹物城싸움을 둘러싼 高麗와 後百濟」 『국사관논총』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 4) 민병하, 「申崇謙과 公山桐蘄 戰鬪」 『軍史』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郷土文化』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1995;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 5) 이형우, 「古昌地方을 둘러싼 麗濟兩國의 각축양상」 『嶠南史學』1,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5; 류영철, 「古昌戰鬪와 後三國의 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7, 한국중세사학회, 1999.
- 6) 신석호, 「신라왕조의 쇄망에 대하여」, 경성제대졸업논문, 1929/『신석호전집』상, 1999; 손진태, 「신라의 쇄망과 그 원인의 검토」 『조선 민족사 개론』상, 1948; 이기동, 「신라쇠망사관의 개요」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집』, 1969; 신호철, 「신라의 멸망과 견훤」 『충북사학』2, 1989; 「신라의 멸망원인」 『韓國古代史研究』50, 한국고대사학회, 2008; 조범환, 「신라 경순왕의 고려귀부」 『이기백선생고회기념논총』, 일조각, 1994.

II. 용주의 역사·지리적 배경

고려 태조 왕건과 신라 경애왕이 연합하여 후백제 국왕 견훤을 공격한 특이 유일한 전투가 927년에 벌어진 용주전투였다. 이 전투가 가능했던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왕건은 918년 6월에 태봉 국왕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고려 국왕에 즉위한 왕건의 첫 해는 모반의 연속이었다.⁷⁾ 하지만 왕건은 이를 바로 수습하였으며, 고려의 대 후백제 전세는 점차 우위 형세를 가지게 되었다.

신생 고려의 접경 대상은 북쪽 발해와 남쪽 후백제·신라였다. 고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이 세 나라에 대한 왕건의 기본 전략은 명확하였다. 만약 고려의 위아래에서 적이 공격해 온다면 고려의 국방력은 감당할 수 없었다. 왕건은 발해에 대해서는 자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쪽의 두 나라에 대한 왕건의 전략이 궁금하다. 왕건은 신라와는 우호적 관계를, 후백제와는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전투를 벌여 나갔다.

이러한 전략은 적이 여럿이면 불리하다는 간단한 병법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왕건의 전략이 잘 적용된 전투가 용주전투였다. 그렇다면 용주의 현 위치부터 파악하는 것이 논지 전개상 우선된다 하겠다.

가) 용궁현(龍宮縣)은 본디 신라 축산(竺山)[원산(園山)]이라고도 한다]인데, 고려 성종 14년 을미에 올려서 용주자사(龍州刺史)로 삼았다가, 목종 8년 을사에 이를 폐지하고, 현종 3년 임자에 낮추어서 용궁군(龍宮郡)으로 삼았다가, 상주(尙州) 임내(任內)에 붙였으며, 명종 2년 임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조선)에서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 토산(土產)은 은구어·사철(沙鐵)이다[… 명류(鳴柳)에 철장(鐵場)이 있고, 세공(歲貢)은 정철(正鐵) 8천 8백 78근이다]. … 용비산석성(龍飛山石城)은 현 남쪽 5리에 있다[높고 험하며, 둘레가 3백 24보인데, 안에 샘이 3개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 봉화가 1곳이니, 용비산(龍飛山)인데, 현 남쪽에 있다[동쪽으로 예천(醴泉) 서암(西庵)에 응하고, 북쪽으로 상주(尙州) 임내(任內)인 산양(山陽) 소산(所山)에 응한다].⁸⁾

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위 사료 가)에 의하면, 신라 축산이 고려 성종 때에 용주자사(龍州刺史)가 되었다가 현종 때에 용궁군(龍宮郡)으로 그 이름이 변천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태종대에는 용궁군이 용궁현(龍宮縣)으로 되었다. 용궁현(龍宮縣)은 1895년(조선 고종 32)에 용궁군이라 하였다.⁹⁾ 그렇다면 경상도에서 용궁군(龍宮郡)·용궁현(龍宮縣)의 현 위치가 어디쯤인지 궁금하다. 같은 이름의 행정구역으로 현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龍宮面)이 찾아진다.

일제 시기인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용궁군의 신하면은 의성군(경북 의성)에 편입되고 그 나머지 면은 예천군에 편입되어 현재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의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¹⁰⁾ 한편, 신하면은 현 예천군 지보면 남쪽에 접해 있는 현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와 월소리 일대로 추정된다.¹¹⁾ 따라서 고려 시대 용주의 범위는 현 예천군의 남쪽과 의성군 안사면 일부, 즉 현 예천군 용궁면과 그 인접 지역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신라 축산은 축산군 또는 축산현이었을 것인데, 군현보다 상위 행정단위인 용주로 승격 변모한 때는 언제인가 밝혀야 할 것이다. 사료 가)에 의하면, 성종 때에 용주라는 지역명이 처음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이미 927년 정월에 용주가 등장하였다.¹²⁾ 이는 927년 이전부터 용주로 불리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지역명에 과시적인 성격이 있었다. 지역세력(호족)이 있는 지역

8) 『세종장헌대왕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용궁현, “龍宮縣 本新羅竺山[一云園山] 高麗成宗十四年乙未 陞爲龍州刺史 穆宗八年乙巳 罷之 顯宗三年壬子 降爲龍宮郡 屬尙州任內 明宗二年壬辰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 土產 銀口魚 沙鐵[… 鳴柳有鐵場 歲貢正鐵八千八百七十八斤] … 龍飛山石城在縣南五里[高險 周回三百二十四步 內有泉三 有軍倉] … 烽火一處 龍飛山在縣南[東準醴泉西庵 北準尙州任內山陽所山]”.

9)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5월 26일.

10) 『한국지명총람』7(경북편Ⅳ), 한글학회, 1979, 10~11쪽; 박종기,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279~280쪽 참고.

11) 경상북도 의성군 홈페이지[안사면->일반현황->연혁·지역특성] 참고(2021년 6월 6일 확인).

1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춘정월 을묘.

의 이름을 주(州)로 승격시켜 준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지역세력이 자청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원래 신라의 지방 편제에 9주가 있었다. 용주는 그 9주의 하나가 아니었다. 통일전쟁기에 9주 이외의 주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운주(충남 홍성)가 있었다. 운주에 지역세력으로 공준(홍균)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주로 불리어졌다.¹³⁾

따라서 신라 축산군(축산현)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영향으로 군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과시적인 성격의 주로서 용주로 불리어졌다고 판단된다. 용주라는 고을 이름의 첫 등장 시기는 통일전쟁기 중에서도 927년 이전이라 하겠다. 용주(龍州)의 용(龍)은 왕을 뜻하기도 하고, 물가 지명에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아마도 낙동강 지류인 이곳의 특성과 전략적 중요성 등을 생각하여 용주라는 지명이 탄생됐다고 여겨진다. 그 이름을 하사하거나 인정한 국왕은 정확히 누구인지 가릴 수 없지만 궁예, 왕건, 견훤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렇다면 용주 치소가 현재 어디쯤인지 찾아보자. 먼저 용궁면 향석리가 주목된다. 향석리는 향석1리와 향석2리로 구성되어 있다. 향석1리 뒷동산의 원 이름이 축산(竺山)이라고 한다. 또한 이 마을은 구읍(舊邑, 旧邑)이라 불리어지고 있다.¹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축산은 객관 북쪽에 있는데 이 고을의 진산이라고 하였다.¹⁵⁾ 따라서 향석리 일대는 신라 때부터 있었던 축산군(축산현)의 치소였으며 조선시대까지도 그 자리를 지

13) 고려 통일전쟁기 운주와 공준(홍균)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軍史』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참고.

14) 향석1리 주민들은 마을 뒤에 있는 산을 뒷동산이라 부르는데 그 원 이름이 축산이라고 하였다. 또한 2003년에 폐교된 향석초등학교(현 ‘회포포 여울마을’) 건물 뒤편에 축암(竺岩)이라 새겨진 바위가 있다. 이 바위 글씨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 향석초등학교 자리가 ‘관사터’라고 한다. 이 마을에는 얼음을 저장했다고 전해지는 빙구산(氷구山), 옥터(옥당골, 현 향석1리 마을회관 자리), 저작걸(지작걸, 장 서는 곳) 같은 지명이 있다. 그런가하면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구읍(舊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이 신라 때부터 자리 잡은 축산군(축산현)이자 용주라 하겠다. 제보자: 권혁상(향석1리, 남 83세), 김성태(향석1리, 남 70세) 외 2명, 2021년 2월 14일 마을 내에서 구술.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용궁현, 산천, 축산.

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 철종 때 홍수로 인하여 현 용궁면 소재지인 읍부리로 그 치소가 옮겨졌다.¹⁶⁾

이상 살펴보았듯이 고려 통일전쟁기 용주의 치소는 현 향석리 일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전쟁 시기였던 만큼 중심 성(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성은 용주의 성이라 할 것인데, 앞에 소개한 사료 가)에서 현 남쪽 5리에 용비산석성(龍飛山石城)이 있다고 하였다. 5리라 함은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또한 그 이름이 용주의 성이라 할 만큼 유사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 성이 용비산성(龍飛山城)이고, 그 산은 용비산(龍飛山)이라 하였다. 거리는 불과 현 남쪽 2리라 하였다.¹⁷⁾



〈도1, 『대동여지도』 용궁현 일대〉

16) 『대동지지』 권8, 경상도, 용궁, 연혁; 『한국지명총람』7(경북편Ⅳ), 한글학회, 1979, 43쪽 용궁면.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용궁현, 산천, 용비산·성곽, 용비산성.

<도1>의 『대동여지도』에서 용궁현 일대를 검토해 보자. 구읍(旧邑, 舊邑)에서 강을 건너면 바로 용비산(龍飛山, 龍飛山)이 자리 잡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용궁현 치소가 이동한 직후의 상황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읍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동지지』에서는 용비산석성(용비산성)이 용비산고성(龍飛山古城)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성은 조선 말기에는 옛 성으로 불리어질 만큼 그 쓰임새가 사라진 듯하다. 이 같은 내력을 가지고 있는 용비산성이 고려 통일전쟁기 용주의 성이라 하겠다.

『문화유적분포지도-예천군』에 의하면, 용비산성은 향석2리(성저 마을) 남서쪽 비룡산 정상부에 테피식 산성이고, 3군데 문지와 몇 건물지 등이 있으며 구간에 따라 협축법과 편축법으로 조성된 토석 혼식이다. 성의 둘레는 약 1km이다. 그리고 이 성이 일명 원산성이다 하였다.¹⁸⁾ 필자가 현장 답사를 해보니, 같은 자리에 비룡산(飛龍山)이 있는데, 용비산(龍飛山)이라는 산 이름이 그 글자 순서만 바뀌어 있다. 향석2리 마을회관에서 용비산성 이정표를 따라 완만한 능선길 600m를 걸으면 성의 서쪽벽에 다다른다.

향석2리는 그 마을 이름이 ‘성밑’ 또는 ‘성저(城底)’로 불리어진다. 용비산성을 주민들은 ‘산산’이라 부르는데¹⁹⁾ 이는 산성을 표현한 듯하다. 용비산성 동쪽에 있는 용비산(현 비룡산) 정상 부근에 봉수대가 있는데 이 또한 이곳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사료에는 용비산봉수라는 이름이 발견된다. 이 봉수는 북으로 상주 산양현(山陽縣) 소산에 응한다고 되어 있다.²⁰⁾ 봉수 연결망으로 볼 때, 용주와 산양현이 군사적으로 가까이 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비산성은 아

18) 『문화유적분포지도-예천군』, 예천군·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212쪽. 여기에서 “용비산성이 일명 원산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19) 제보자: 이상길(향석2리 이장, 남 71세, 자택에서 구술) 2021년 2월 14일 구술. “향석2리 일대에 고려장(무덤)이 수십 개다”라는 전언은 이 일대의 고려시대 연관성을 생각하게 한다.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용궁현, 봉수.

직 제대로 된 발굴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초축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용주라는 이름과 관련된 산성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고려 통일전쟁기에는 이 성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성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는데,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용비산 일대를 가운데 두고 안동쪽에서 내려오는 낙동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며 남쪽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내성천은 봉화에서 시작하여 영주를 거쳐 예천 회룡포에서 한 번 휘감고 다시 용비산 일대를 거꾸로 휘감으며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이때의 내성천은 역 S자로 흐르고 있다. 금천(『대동여지도』의 성화천)은 북서쪽에서 내성천과 만나며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즉 용비산 일대를 3개의 강과 하천이 감싸고 있고, 오직 동남쪽만이 내륙으로 이어졌는데 이 또한 산자락이라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성벽에서 강과 그 너머까지 시야가 잘 확보되어 있어서 적의 침입을 사전 탐지하기에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었다.²¹⁾

용비산(비룡산)은 해발 약 240m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천혜의 자연 해자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 산 서편에 테피식으로 자리 잡은 산성이 용비산성, 즉 용주의 성이었다.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용비산성이었다. 또한 이 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쟁기에 치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²²⁾ 여기에 더해 이 곳은 3개의 강과 하천이 만나기 때문에 낙동강을 이용한 수로 교통의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료 가)에 의하면, 이 일대가 철 생산지였다고 한다. 전쟁의 시기에 철은 무기 생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통일전쟁기에 용주의 명칭이 등장하였고,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는 관련 성(城)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용주를 기반으로 한 지역세력이 존재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용주가 군사적

21) 2021년 2월 14일 답사.

22) 아마도 통일전쟁기에는 용비산성이 용주의 치소 역할을 하고, 평화 시에는 축산 아래 향석1리가 치소였다고 판단된다. 두 지역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전쟁 상황 시 그 대비 문제 등을 생각할 적에 이러한 설정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Ⅲ. 927년 용주전투 과정과 신라 경애왕의 의도

태조 왕건은 927년(태조 10) 정월에 용주(경북 예천군 용궁면)를 친정(親征)하였다.²³⁾ 그렇다면 용주전투 시 용주와 인접한 경북지역의 세력 분포는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신라는 이미 그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즈음에 경북지역 중에서 흥주(興州, 경북 영주시 순흥면) 부석사일대를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다. 흥주는 궁예 때에 태봉의 영역이었다.²⁴⁾ 여기에 더해 이 일대 장군곡(藏軍谷)에서 왕건이 병사를 숨겨두었다가 오천사람들을 격파하였다는 설도 있다.²⁵⁾ 또한 뒤에 기술하겠지만 기주(基州, 基木鎭,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대)가 고려의 영역이었다. 무엇보다도 흥주와 기주가 용주 북쪽이기 때문에 왕건이 용주를 공격했다는 것은 현 경북 영주 일대가 고려의 영역이었다고 판단된다.

왕건이 즉위하고 3개월이 지난 918년 9월에 상주(경북 상주)의 지역 세력이자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가 고려로 귀부하였다.²⁶⁾ 925년 10월에 고을부(경북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건에게 투항하였다. 왕건은 고을부가 신라도성인 금성(金城, 경북 경주)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돌려보냈다. 다만 그 휘하 몇 명만 고려에 남게 하였다.²⁷⁾ 이는 고을부가 신라도성에 근접한 곳이어서 신라를 자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신라를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는 힘이 약한 신라는 우호

2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춘정월 을묘.

24) 궁예는 흥주 부석사 일대까지 진출하여 그 행적을 남겼다(『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영천군(榮川郡), 고적, 신증, 장군곡.

2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9월 갑오.

2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8년, 동10월 기사.

적으로 대하면서 놔두고 후백제와의 각축만 집중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때 고려와 후백제는 조물군(조물성)을 두고 격돌하였다. 조물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²⁸⁾ 대체로 경북 내륙의 어느 곳이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924년 7월과 9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군은 조물군에서 격돌하였다.²⁹⁾

고창군(古昌郡, 경북 안동)은 뒤에 929년 12월부터 930년 정월까지 벌어진 고창군전투 시 고려군과 함께 했으므로³⁰⁾ 어느 정도의 범위는 고려의 세력권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가하면 경북지역의 남쪽인 경산부(경북 성주)도 고려의 세력권이었다. 923년(태조 6) 8월에 벽진군장군(경산부장군, 경북 성주) 양문(良文)이 왕건에게 항복하였다.³¹⁾ 이상에서 927년 정월 이전의 경북지역 정황을 거칠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보인다. 왕건은 신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항복해 오는 지역세력은 포용하였다.

이즈음 후백제 국왕 견훤은 대야성(경남 합천)을 공략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견훤은 901년(신라 효공왕 5) 8월에 대야성을 쳤으나 성공하지 못하고,³²⁾ 916년(신라 신덕왕 5) 8월에도 대야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³³⁾ 견훤은 마침내 920년(신라 경명왕 4) 10월에 보기(步騎) 1만 명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친정하여 함락시켰다. 이어서 견훤은 군사를 진례성(경남 김해시 진례면)을 향해 진군하였다.³⁴⁾

원래 대야성은 이전 시기에 신라와 백제가 병립할 때에 신라 수도로 이어지는 서부 요새였다. 후백제와 신라가 예전의 상태로 비슷하게 되돌아 간 상태에서 견훤이 대야성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신라 경명왕은 후

28) 조물군(조물성) 위치에 대한 여러 설은, 류영철, 앞의 책, 2005, 76~78쪽 참고.

2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7년 7월과 8년 10월 을해.

3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과 13년 춘정월.

3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6년 추8월 임신 ; 『삼국사기』에서는 경산부장군 양문이라 하고 7월로 기술되어 있다(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7년 추7월).

32)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5년 추8월.

33)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신덕왕, 5년 추8월.

34)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동10월.

백제군이 진례성까지 오게 되자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고려군이 출동하자 견훤은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³⁵⁾ 물론 견훤은 대야성에 일정 병력을 주둔시키고 물러났을 것이다.

경명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같은 해 정월에 양측이 사절을 교환하고 우호를 닦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³⁶⁾ 그런데 924년에 경명왕이 사망하고 만다. 왕건은 신라로 사신을 보내 조문하였다.³⁷⁾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견훤은 고려의 영역인 조물군을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 신라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군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즈음 세 나라 사이에 특별한 행위가 발생하였다.

925년 10월에 벌어진 제2차 조물군전투에서 고려와 후백제는 서로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질자(質子)를 교환하며 전투를 멈추었다. 양측의 교환질자는 고려의 왕신과 후백제의 진호였다. 이때 신라 경애왕이 사신을 보내 태조에게 이르기를, “견훤은 변덕스럽고 거짓말이 많아서 그와 화친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이에 태조는 수긍하였다고 한다.³⁸⁾ 이처럼 경애왕은 이전 왕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전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경애왕은 고려 쪽에 좀 더 가까이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후백제는 전략적 거점인 대야성을 점령하며 신라를 압박하였다. 하지만 고려는 신라를 구원해 주었으며, 경명왕 사후에는 조문 사절도 보내주었다. 이러한 점들이 경애왕으로 하여금 친 고려 정책을 구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고려와 후백제가 질자를 교환하며 화친하는 것보다 서로를 부딪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경애왕 나름의 이이제이(以夷制夷)라 하겠다. 이미 국력이 약해진 신라가 단독으로 후백제를 응징할 수는 없었다. 경애왕은 고려와 후

35)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동10월.

36)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춘정월.

37)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8년 추8월.

38)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2년.

백제가 화친하기 보다는 고려가 후백제를 공격해 주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왕건에게 견훤을 믿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견훤 입장에서 경애왕의 행위는 신라 공격 의지를 더 높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때 견훤을 더욱 자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926년(태조 9) 4월에 고려로 보낸 후백제 질자 진호가 사망하자, 견훤은 고려가 죽였다고 분노하였다.³⁹⁾

견훤은 같은 달에 웅진(충남 공주)으로 진군하였다. 왕건은 각 성에서 굳게 지키고 나와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분노한 후백제군에 고려군이 맞대응하면 진호를 고의로 죽였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경애왕은 왕건에게 견훤을 공격하라고 부추겼다.⁴⁰⁾ 아마도 이때 경애왕이 고려와 군사적으로 연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경애왕이 견훤을 더욱 분노케 한 다음 사건이 있었다. 927년 정월에 벌어진 용주전투가 그것이다.

나) (927년 정월 을묘일, 고려 태조 왕건이) 친히 백제(후백제) 용주(龍州)를 정벌하니 항복하였다. 이즈음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우리 고려의)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왕(태조 왕건)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넣어두며 참아왔다. (그러나) 견훤의 죄악이 더하고 쌓이어 자못 (우리 고려를) 세차게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왕이 이를 쳤던 것이다. 신라왕(경애왕)이 출병하여 (우리를) 도왔다.⁴¹⁾

위 사료 나)는 용주전투의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내용은 간단한 듯 하지만 세밀히 분석하면, 용주전투가 어떠한 실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3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9년 하4월 경진.

4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9년 하4월 경진.

4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춘정월 을묘, “親伐百濟龍州降之時甄萱違盟屢舉兵侵邊王含忍久之萱益稔惡頗欲強吞故王伐之新羅王出兵助之”. 『고려사절요』 태조 10년 춘정월 관련 기사는 『고려사』와 거의 같다. 『삼국사기』 경애왕 4년 춘정월 관련 기사는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사』 관련 기사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기에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투 발생 시기는 927년(태조 10) 정월 을묘일이었다. 이 해 정월 삭일(朔日)은 계축이므로 을묘는 3일이다. 따라서 정월 을묘일은 음력 1월 3일이었다.⁴²⁾ 이 날, 용주(龍州, 경북 예천군 용궁면龍宮面 일대)에서 고려·신라 연합군과 후백제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천혜의 요새 지형을 갖고 있는 용주의 성(용비산성)을 두고 양측이 격돌하였다. 연합군은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 후백제군은 지키기 위해 전투를 벌였으나 결과는 연합군의 승리였다.

이러한 용주전투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날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논지 전개상 우선된다. 정월 계축일, 즉 음력 1월 1일 계축일은 설날(이하 편의상 ‘설날’이라 칭함)이었다. 『수서』에서 “신라의 풍속(風俗)·형정(刑政)·의복(衣服)은 대략 고려(고구려)·백제와 같다. 매년 정월(正月) 원단(元旦, 설날)에 서로 하례(賀禮)한다. 임금은 연회를 베풀어 못 관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날에는 일신(日神)과 월신(月神)에게 절을 한다.”⁴³⁾ 하였다.

그런가하면 『삼국사기』에 “신라 진덕왕(진덕여왕)이 651년(진덕왕 5) 정월 초하루에 백관의 신년 하례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다.⁴⁴⁾ 『고려사』에서는 설날을 원정(元正)으로 표기한 기록이 보인다. 고려 속절(俗節) 아홉 날 중에 원정이 있었다. 어느 시기 어느 나라든지 새해 첫날은 기념하고 즐긴다. 고려는 원정에 금형(禁刑), 즉 형벌의 집행을 금지하였다.⁴⁵⁾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에 이르기까지 설날은 명절이었다. 이 날은 오래전부터 신하들이 왕에게 하례하고, 민(民)도 서로 하례하고 즐기는 명절이었던 것이다.

용주전투는 설날 이틀 후인 정월 초사흘에 벌어진 전투였다. 전투 날짜 택일이 예사롭지 않다. 왕건은 용주의 후백제군이 설날 명절 즈음에 기강이 느슨해진 틈을 노린 것 같다. 이는 후백제의 허를 찌른 기습이었

42)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1, 경인문화사, 2014, 210~211쪽.

43)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신라.

4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5년 춘정월 삭.

45)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금형, 속절.

다. 고려와 후백제는 주로 농한기에 전투를 벌인 시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⁴⁶⁾ 하지만 양국은 용주전투 이전에 농한기라 하더라도 설날 명절 전후에는 전투를 벌인 예가 없었다. 설날 같은 명절에 양국은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쉬도록 했던 것이다.

특히 926년 4월에 웅진에서 고려와 후백제가 격돌할 뻔했지만 무산되었다고 하였다. 그 뒤로 양국은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그리고 약 9개월 후에 왕건은 용주를 정벌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런데 그 공격 날짜를 정월 초하루 설날 당일로 정했다면 기습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용주를 공격하려면 고려 도성 개경(개성)에서 최소 일주일전에는 군대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만약 고려군이 설날을 공격일로 정했다면 선달그믐에 용주 인근에 도착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후백제군이 고려군의 공격을 탐지하여 준비를 하면서 지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용비산성의 입지로 보아 북쪽에서 오는 적 탐지가 용이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장 답사를 통해 얻은 지식이다. 따라서 고려군이 이 성을 치려면 갑자기 들이 닥치는 방법이 우선 요구되었다.

왕건의 의도는 용주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고려군을 도달하게 한 다음에 설날 당일에 이동하도록 계획했다고 보여진다. 고려군이 주둔지에서 설날 당일에 출발하여 이틀 후인 초사흘(정월 을묘일)에 용주를 공격한다면 기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왕건은 전투 날짜를 초사흘로 잡았던 것이다.⁴⁷⁾

왕건이 친정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용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읽혀진다. 그렇다면 개경에서 출발한 왕건이 용주 공격을 위해 일차적으로 주둔한

46)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1~56쪽 참고.

47) 필자는 일부러 용주전투 날짜인 음력 1월 3일(2021년 2월 14일)에 용비산성과 그 일대를 현장 답사하였다. 그 결과 강의 깊이, 강의 결빙, 바람 등과 같은 이유는 전투 날짜 택일과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이즈음과 관련하여 전투에 영향을 미칠 이 지역의 자연 조건은 발견하거나 구술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정월 초사흘 날짜 택일은 명절로 인한 후백제군의 느슨한 경계 태세를 노린 왕건의 기획이었다고 판단된다.

곳은 어디일까 궁금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용주전투 직후에 왕건은 문경일대를 집중 공략하였다. 이는 이 전투 이전에 문경일대를 고려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고려군은 충주에서 문경을 거쳐 용주로 오는 진군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세력분포와 진군로를 생각해 볼 때, 고려군이 용주 남쪽으로 돌아 와서 공격했다는 설정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일 합당한 고려군 진군로는 단양(충북 단양)에서 죽령을 이용하여 영주지역(경북 영주시 일대)을 거쳐서 용주로 이어진 교통로였을 것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부석사(경북 영주) 일대가 고려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기주(基州, 基木鎮,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대)가 고려의 영역이었다. 기주에는 지역세력인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 상국(上國) 강공훤(康公萱)이 있었다.⁴⁸⁾ 강공훤은 927년 9월 현재 고려 시종이었으므로⁴⁹⁾ 그의 연고지인 기주는 일찍부터 고려의 영역이었다. 또한 왕건이 머물렀다는 등강성(登降城)의 존재도 영주지역 일대가 고려의 안전지대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등강성은 <도1>의 오른쪽 맨 위에 그 위치가 보인다.⁵⁰⁾

용문산 용문사(龍門寺, 경북 예천군 용문면)는 왕건이 두운(杜雲)을 위하여 창건한 사찰이었다.⁵¹⁾ 왕건은 용문사 창건을 통해 선사(禪師) 두운의 지지와 이 일대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⁵²⁾ 통일전쟁 전후

48)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한국역사연구회 중세1분과 나말여초연구반 편, 1996, 52쪽; 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0, 100쪽.

4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50) 왕건이 등강성에서 7일간 머물렀다고 한다. 등강성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풍기군(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대) 관내에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풍기군, 고적, 등강성). 한편, 등강성이 구 봉현서부국민학교 뒤에 있는 마산(馬山) 또는 근처 지경터 산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있다(송지향 편저, 『榮州·榮豐郷土誌』上, 驪江出版社, 1987, 104쪽). 그 정확한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5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예천군, 산천, 용문산·불우, 용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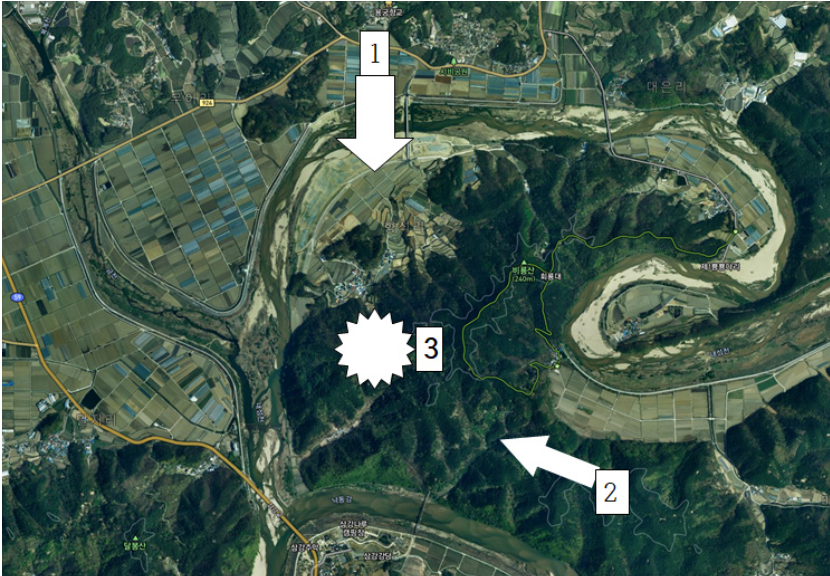
52)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30~31쪽·110쪽 참고.

에 행해진 왕건과 두운과의 관계를 통해 고려군은 안전한 진군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죽령을 넘어온 고려군은 예천 용문산 일대를 거쳐 용주로 향했던 것이다. 용문산은 <도1>의 가운데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왕건이 이끈 고려군은 개경에서 출발하여 설날 직전에 강공훤의 영향아래에 있는 안전지대인 죽령의 어느 곳에 도착하여 대기하였을 것이다. 후백제군은 새해 첫날 명절이라서 느슨해져 있었을 터이다. 이를 노린 고려군은 설날 당일에 비밀스럽게 죽령에서 출발하였다. 용문산 일대를 거쳐 용주(용비산성)에 고려군이 나타난 것은 초사흘이었다. 당연히 신라군도 고려군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여겨진다. 신라군은 신라도성인 금성(경주)에서 출발하여 용주전투 목적지에 다다른데 이 삼일 정도 소요되는 지점에 주둔하였을 것이고, 주둔지에서 새해 초하루에 출발하여 초사흘에 전투 현장에 도착했다고 추정된다.

한편, 신라군은 경애왕이 친정했는지 아니면 군사만 출병시켰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위 사료 나)에서 왕건은 친벌(親伐)이라 하였으니 친정이 분명하였다. 경애왕은 신라왕 출병(新羅王 出兵)이라 하였으니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아무튼 경애왕의 친정 가능성도 있지만 과감히 신라군이 출병하여 고려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왕건의 고려군은 그 진군로, 그리고 용비산성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 및 지리적 요건으로 보아 북쪽에서 강을 건너 공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역시 지형적 지리적 요건으로 보아 신라군은 동남쪽 산등성이에서 공격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지도로 표시하면 <도2>와 같다.



<도2, 용주전투 상황도>53)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왕건이 이끈 고려군은 “개경 출발 -> 죽령 대기 -> 정월 초하루 출발 -> 예천 용문산 일대 -> 정월 초사흘 용주 도착”의 순서로 진군하였다. 신라군은 “금성(경주) 출발 -> 용주에 이삼일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지점에서 대기 -> 정월 초하루 출발 -> 정월 초사흘 용주 도착”의 순서로 진군하였다.

마침내 927년(태조 10) 정월 초사흘(을묘일)에 고려와 신라 연합군은 후백제군의 용비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도2>에서 연합군의 목표 지점은 3번 용주 용비산성이었다. 1번 화살표는 고려군의 공격선이고, 2 번은 신라군의 공격선이다. 후백제군은 정월 초 명절에 적에게 공격당할 예가 없었다. 더군다나 고려와 신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해 온 예도 없었다. 특히 연합군은 왕건이 친정했고 경애왕이 관여했으므로 당연히 최고 정예군이였다. 난공불락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용비산성의

53) Daum 지도 편집함.

후백제군은 양국의 최정예 연합군이 성의 앞뒤에서 공격해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술에 무너졌다. 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곳의 지역 세력은 용주전투 패배로 인하여 몰락했을 것이다.

용주전투는 통일전쟁기에 특이한 사례 두 가지를 남겼다. 첫째, 고려군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후백제군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정월 명절에 기습 공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전투 택일이 절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와 신라 양국의 셈법이 있었을 것이다. 왕건의 의도는 다음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신라 경애왕은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질문을 하게 된다. 이미 경애왕의 의도는 앞에서 기술한 내용 중에서 읽을 수 있다. 조물군전투 이후에 고려와 후백제가 질자를 교환하였는데, 경애왕은 왕건에게 견훤을 믿지 말라고 하였다. 바로 이어서 후백제에서 고려로 간 질자 진호가 죽고 난 후에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뻔하였다. 이때도 경애왕은 왕건에게 견훤을 비난하면서 공격하라고 부추겼다.

경애왕은 이전의 왕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전쟁 상황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원래 고려와 후백제는 신라 입장에서 볼 때 반란세력들이었다. 그 상황을 경애왕은 일정부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였다. 경애왕이 왕건과 견훤 모두를 적대 세력으로 설정하기에는 신라의 국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신라에 우호적인 왕건은 일단 가까이 하고, 신라에 공격을 가하는 견훤은 배척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애왕의 전략은 최종적으로는 양국을 싸우게 만들어 힘을 약화시키고, 신라의 국력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애왕의 의도는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당시 정세를 잘 파악한다면 설정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경애왕은 쇠잔한 신라의 국력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군사력을 모아 용주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하였다. 신라는 후백제를 향해 더 이상 침략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경애왕에게는 신라군 단독으로 후백제군을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다. 하지만 신라군이 고려군과 연합하여 후백제군을 응징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경애왕은 용주전투를 통해 아직 신라의 군사력이 살아 있음을 견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신라를 함부로 공격하면 고려와 연합하여 후백제를 응징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견훤에게 보낸 전투가 용주전투였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기가 저하된 신라군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한 전투도 용주전투였다.

용주전투는 통일전쟁기에 고려군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후백제군과 벌인 특이 유일한 전투였다. 여기에 경애왕의 역할 및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IV. 용주전투 이후의 판세와 신라 멸망

927년 정월 초사흘(을묘일)에 벌어진 용주전투는 고려·신라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된 듯하였다. 이 전투에 대한 고려와 신라 양국의 썬법은 달랐다. 패배한 후백제 또한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견훤은 생각지 못한 양국의 연합군 협공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후백제군의 사기 위축 문제도 해결해야만 하였다. 즉 각국의 계산이 달랐던 것이다. 신라 경애왕의 이 전투에 대한 의도는 앞에서 기술하였다.

왕건은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새롭게 고려의 영역에 포함된 용주 책임자, 지방관은 왕건이 믿고 맡길만한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용주의 지역세력은 후백제 휘하였는데 용주전투 패배 후에 그 존재가 사라졌다. 그 용주에 당나라에서 귀화한 성씨인 곡씨(曲氏)가 있었다.⁵⁴⁾ 용궁곡씨 시조는 곡궁회(曲矜會)였다.⁵⁵⁾ 그는 태봉 국왕 궁예 때에 내봉사(內奉史)였는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고 단행한 918년 6월 20일(신유일) 첫 인사에서 평찰(評察)에 임명되었다.⁵⁶⁾

5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용궁현, 성씨.

55) 이수진,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128쪽;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고려사』1, 세가1』, 경인문화사, 2008, 86쪽.

5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신유.

고려 건국일이 6월 15일(병진일)이므로,⁵⁷⁾ 불과 건국 5일 만에 단행된 인사에서 국공회는 계속 등용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간단한 몇정황이 읽혀진다. 국공회는 태봉 때부터 인재로 알려져 있어서 고려 개국 초에도 계속 중앙관직에 봉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공회가 왕건의 혁명에 참여 내지는 동조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왕건은 국공회를 믿을 수 있는 인재로 판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국공회가 용궁곡씨 시조라 했으니 새롭게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된 용주(용궁)의 책임자(지방관)로서 손색이 없었다.

용주전투 직후 이 지역 책임자를 찾아보았으니 다음은 이후 전장 판세를 살펴볼 차례이다. 용주 용비산성은 3개의 강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천혜 해자를 갖춘 요새이지만 고려군이 이를 우회해도 되는 성이었다. 고려군이 남으로 진군할 적에 용주를 멀리 우회하여 동쪽을 통해 진군해도 큰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왕건은 927년 첫 점령지로 용주를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용주전투 시 고려와 신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후백제군을 고립시키며 협공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궁금하다.

용주전투 이후 왕건의 행보 및 전장 판세를 분석한다면 이 전투에 대한 궁금함이 더 해소될 것이다. 927년에 유달리 고려와 후백제가 자주 격돌하였다. 『고려사』 태조세가에 나타나기를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은 6번 격돌하였는데 용주전투를 제외한 5사례(3월~7월)를 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전장 판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리가 될 것이다.

5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병진.

시기	장소	현 위치	결과
927년 3월	운주(제1차 전투) ⁵⁸⁾	충남 홍성	고려군 승리
927년 3월	근품성(근품현, 근암현, 산양현)	경북 문경시 산양면	고려군 승리
927년 4월	강주(康州), 전이산향, 노포향, 평서산향, 돌산향	강주(경남 진주), 전이산향(경남 남해), 노포향(경남 남해), 평서산향(경남 남해), 돌산향(전남 여수시 돌산도)	고려군(수군) 승리
927년 4월	옹주	충남 공주	고려군 실패
927년 7월	대량성	경남 합천	고려군 승리

〈표1, 927년 3월부터 7월까지 고려군의 후백제 공격 사례〉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927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고려와 후백제 양국은 5차례 전투를 벌이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된다. 5차례 전투가 모두 고려군의 선제공격이었다. 고려군은 옹주를 제외하고 운주, 근품성, 강주, 전이산향·노포향·평서산향·돌산향, 대량성 등을 공격해서 함락 또는 쳐부수는데 성공하였다. 옹주도 고려군이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지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표1〉에 의하면, 고려군이 영향력을 행사한 경상지역은 근품성, 강주, 대량성이었다. 강주와 대량성은 전통적으로 경남지역 주요 군사 거점이었기에 이곳에서 고려군이 승리한 것은 판세를 주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운주(충남 홍성)는 충남지역의 거점인데 고려가 장악하였다. 돌산향(전남 여수)까지 고려 수군이 장악하였다는 것은 고려가 서해와 남해로 이어지는 해상로를 장악했다는 의미였다. 연이은 고려의 공격에 후백제가 계속 당하는 판세였다. 이는 용주전투 패배 이후 후백제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용주전투 직후인 3월에 고려군이 근품성을 함락시켰다. 근품

58) 운주전투는 모두 2차례(927년, 934년) 벌어졌는데 927년은 그 첫 번째 전투였다.

성은 현 경북 문경시 산양면 일대에 있었다.⁵⁹⁾ 이곳은 용주 바로 서쪽 옆인데, 두 지역이 인접하여 봉수로 연결되었음을 앞에서 기술하였다. 왕건이 용주전투가 끝난 직후에 바로 옆에 있는 근품성을 함락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같은 해 8월에 있었던 왕건의 행보에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왕건이 강주(진주)로 순행할 적에 고사갈이성을 지나갔다. 고사갈이성 또한 문경에 있었던 성이었다.⁶⁰⁾

이때 고사갈이성 성주 흥달(興達)이 왕건에게 귀부하였다.⁶¹⁾ 고사갈이성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문경 일대 중심부에 있었던 주요한 성이라고 추정된다. 지역세력인 흥달은 용주전투를 통해 힘의 향배를 파악하였다. 험한 요새인 용주 용비산성이 함락되고 이어서 근품성까지 함락되었으므로 그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다. 고사갈이성 흥달은 왕건의 다음 타격 목표가 자신이라고 판단하여 귀부하였던 것이다.

고사갈이성이 귀부하고 바로 이어서 같은 달에 왕건은 배산성(拜山城)을 수축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선(悌宣)으로 하여금 병(兵) 2대(隊)로서 배산성을 지키게 하였다.⁶²⁾ 배산성은 그 위치가 현 경북 문경시 호계면 일대에 있었는데⁶³⁾ 근품성 바로 서편이었다. 이때 제선이 지휘한 병 2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중앙군이 아닐까 한다. 병 2대의 존재는 특이한 사안인데, 더구나 왕건이 문경일대를 연이어 영역화했다는 점 또한 특이하였다.

왕건은 용주전투 승리 이후에 바로 서편에 있는 문경일대를 세밀하게 장악해 나갔다. 근품성, 고사갈이성, 배산성 등이 고려의 군사력에 장악되었다. 이렇게 되면 일찍부터 충북지역인 충주와 괴산 일대를 장악하고

59)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상주목, 산양현; 『삼국유사』 권2, 기이2, 후백제 견훤 [萱攻取近品城(今 山陽縣) 燒之: 견훤이 근품성을 취하고 불태웠다고 하였는데, 근품성은 지금의 산양현이라 하였다] .

60)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상주목, 문경군.

6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8월 병술;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 10년 8월.

6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정해 10년 8월.

6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문경현, 고적, 호계폐현.

있었던 고려의 군사력이⁶⁴⁾ 문경으로 연결 및 확대되는 것이다. 충주와 괴산 방면에서 문경새재와 이화령을 통해 문경으로 고려군의 진군로가 연결될 수 있었다. 그래서 왕건은 용주전투 승리 이후에 근품성을 먼저 공략하고 연이어 문경일대를 공략했던 것이다.⁶⁵⁾

용주전투 직후에 벌어진 판세를 통해 왕건의 용주전투 결행 의도가 밝혀졌다. 이는 신라 경애왕의 의도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왕건의 의도는 당연히 통일전쟁의 전체 판세를 고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통일전쟁의 큰 전략에서 파악된 의도였다. 하지만 지엽적인 의도는 문경일대를 장악하고자 용주전투를 결행했던 것이다. 원래 고려군이 충주와 괴산 방면에서 경상지역으로 안전하게 넘어 올 수 있으려면 문경 일대를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서 왕건은 용주를 공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용주전투 작전 아이디어는 누가 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군사력이 현저히 약한 신라가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특히 용주전투 직후에 문경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왕건의 행위를 통해 그리 생각된다. 그리고 용주전투 시 신라군이 고을부(경북 영천)를 안전하게 통과해야만 용주에 다다를 수 있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고을부는 이미 고려의 영향권이었으므로 왕건의 승낙이 있었기에 신라군의 안전 진군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용주전투 전술 아이디어는 왕건이 했다고 추정된다. 여기에 신라 경애왕의 이해타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양국의 연합군 형성 및 공격이 가능하였다. 용주전투 직후 판세를 통해 용주전투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졌다.

이제 후백제 견훤이 계속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한계 상황이 자리 잡게 되었다. 더군다나 경상지역에서의 후백제가 처한 열세를 만회하여

64) 충주와 괴산 등은 900년에 궁예의 명에 따라 왕건이 정벌한 바 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광화 3년 경신).

65) 왕건은 지리적으로 험한 문경새재와 이화령을 넘어서 문경 일대를 공격하는 것보다 용주 점령을 우선 선택하였다. 그는 용주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문경 일대를 점령하여 이를 충주·괴산과 연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야만 하였다.⁶⁶⁾ 용주전투가 끝나고 불과 8개월 후인 927년 9월에 견훤의 군사적 특기가 발휘되었다. 견훤은 기습작전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장수이자 국왕이었다.⁶⁷⁾ 견훤은 먼저 근품성을 타격하고, 곧바로 고을부를 기습하였다. 신라도성인 금성(경주) 가까운 곳에 후백제군이 다다르자 경애왕은 왕건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건은 구원군 1만 명을 보냈다. 하지만 구원군이 닿기 전에 견훤은 신라도성에 진입하였다.⁶⁸⁾

이때 경애왕은 견훤의 후백제군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는 신라군의 국방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는 용주전투 시에 신라군이 그나마 남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고려군과 연합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그만큼 경애왕은 무리하게 용주전투에 참전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가 견훤의 신라도성 기습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애왕의 처지는 다음과 같다.

다) (신라 경애왕은) 갑자기 (견훤의 후백제) 군사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급작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경애왕)과 부인은 달아나서 성 남쪽 이궁(離宮)에 숨었다. … (견훤은) 왕궁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서 측근에 영을 내려 왕(경애왕)을 찾아서 군사들 가운데서 꺾박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며 … 왕(경애왕)의 외사촌 동생 김부(金傅, 경순왕)를 왕으로 삼아 세우고 … 왕(왕건)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신라에) 사절을 보내 조문과 제사를 하고 친히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公山) 동수(桐蔭)에서 견훤과 부딪쳐 크게 싸웠는데 불리하였다.⁶⁹⁾

견훤은 고려에 보낸 질자 진호의 사망으로 인한 분노, 이어진 신라 경애왕의 이간질과 용주전투에서 보여준 고려와의 연합 공격에 대한 응징 등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점차 고려가 후백제를 포위하는

66) 류영철, 앞의 책, 2005, 109~110쪽 ; 신성재, 앞의 논문, 2012, 188쪽 참고.

67) 김상기, 「羅末地方群雄의 對中通交 -특히 王逢規를 중심으로-」 『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0 :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84개정판, 440쪽 참고.

6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6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 忽聞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夫人 走匿城南離宮 … 入處王宮 令左右索王 置軍中 逼令自盡 … 立王表弟金傅爲王 … 王聞之大怒 遣使弔祭 親帥精騎五千 邀萱於公山桐蔭 大戰不利”.

불리한 전체 전장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더해 과거 신라가 옛 백제를 멸망시킨 역사에 대한 복수 등이 어우러지면서 견훤은 신라도성을 짓밟았다. 927년 9월부터 시작된 견훤의 ‘신라도성 기습작전’은 이러한 복합적 이유로 인하여 결행되었다.

이때 견훤의 의사대로 경애왕은 사망하고, 김부가 새로운 신라왕이 되었다. 경애왕은 쇠잔한 신라를 나름 다시 일으켜보려고 남은 군사력을 다해 고려와 함께 후백제 영역인 용주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이는 견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⁷⁰⁾ 만약 용주전투시 경애왕이 중립을 지켰더라면 최소한 비참하게 죽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경애왕이 죽음으로서 신라는 사실상 멸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 다)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면, 왕건은 신라 구원 명분을 세우고 최정예 병력인 정기 5천을 이끌고 왔다. 그는 공산동수(대구 팔공산 동화사 일대)에서 견훤과 크게 싸웠는데 불리했다고 하였다.

공산동수전투에서 고려군은 몰살되고 왕건만 겨우 살아남았다.⁷¹⁾ 견훤은 인근 벽진군(경북 성주군 벽진면 일대), 대목군(경북 칠곡군 약목면 일대), 소목군 등에서도 고려에 타격을 가하였다. 이 모든 행위는 11월에 그치었다.⁷²⁾ 견훤이 주도한 근품성·고울부·신라도성·공산동수·벽진군·대목군·소목군 등에서 벌어진 전투는 연속성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다. 이 사건은 92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다. 통일전쟁기에 가장 긴 시간 동안에 벌어진 큰 사건 및 전투의 연속이었다.

이는 편의상 견훤의 ‘신라도성 기습사건’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경애왕 사망과 경순왕 등극, 그리고 공산동수전투는 이 사건의 한 부분들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고려의 국세는 꺾이게 되었으나 929년 12월부터 930년 정월 사이에 벌어진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는 왕건이 견훤을

70) 경애왕의 조병(助兵)으로 인하여 견훤의 9월 경주 공격이 있게 되었다는 견해는, ‘장동익, 앞의 책, 2014, 211쪽’ 참고.

7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7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10월·11월.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왕건은 이 전투의 승리로 경상지역을 석권하게 되었다.⁷³⁾ 여기에 짝하여 신라는 더욱 작은 고을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934년 9월의 제2차 운주전투(충남 홍성)도 왕건이 승리하자,⁷⁴⁾ 견훤은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후 견훤은 935년 3월에 부자간의 갈등 속에서 유폐되었고, 같은 해 6월에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부하였다.⁷⁵⁾ 이를 지켜본 경순왕은 같은 해 12월에 신라를 왕건에게 바치고 말았다.⁷⁶⁾ 경순왕은 8년 정도 자리를 지킨 뒤에 신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던 것이다.⁷⁷⁾ 경애왕이 사망한 후에 그 뒤를 이은 경순왕은 경애왕과 같은 신라 재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927년 9월부터 진행된 견훤의 신라도성 기습사건으로 인하여 경애왕이 사망함으로써 신라는 실질적으로 멸망한 거나 다름없었다. 경애왕은 나름 신라 재건을 위해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모아 고려 왕건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용주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경애왕의 의도는 일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벌어진 결과는 처참하였다. 용주전투 승리 후, 같은 해에 경애왕은 견훤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신라 멸망을 재촉시키고 말았다.

7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13년 춘정월·13년 2월.

74)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추9월.

7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춘3월·하6월.

7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12월.

77) 신라 멸망과 관련하여 경순왕을 신라왕으로 세웠던 견훤이 경순왕의 고려 귀부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신호철, 앞의 논문, 1989, 38~40쪽).

V. 맺음말

927년 정월에 벌어진 용주전투(龍州戰鬪)는 고려 통일전쟁기에 특이 유일한 성격을 가진 전투였다. 그간 학계에서는 927년 9월 이후에 연이어 벌어진 후백제 국왕 견훤의 신라도성 기습과 공산동수전투가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용주전투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 사건 및 전투를 고찰하면서 간단히 몇 줄 기술하며 지나친 소재가 용주전투였다. 본 연구는 용주전투의 전말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 전투가 신라 멸망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당시 전투가 벌어진 용주(龍州, 경북 예천군 용궁면과 그 인접 지역)의 성은 용비산성이었다. 후백제 견훤의 영역이었던 이 성은 3개의 강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천혜 요새였다. 왕건은 이 성을 공략하는데 있어서 전투 택일을 927년 정월 초사흘(을묘일)로 정하였다. 정월 초하루(계축일)는 명절(설날)이었고 그 이틀 후인 초사흘이 전투날짜였다. 이는 명절에 느슨해진 후백제군의 허를 찌르고자 하는 작전이었다. 여기에 신라 경애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고려를 도왔다.

용주전투는 통일전쟁기에 특이한 사례 두 가지를 남겼다. 첫째, 고려군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후백제군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정월 명절에 기습 공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전투 택일이 절묘했던 것이다.

이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과 이후 처리 과정 속에서 각국은 다른 선택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 경애왕은 용주전투 이전에 왕건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왕건에게 견훤을 공격하라는 권유를 하였다. 그런 후에 신라군은 고려군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용주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이는 후백제 국왕 견훤에게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참전은 신라 국방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위였다. 하지만 경애왕은 신라 재건을 위해 참전을 단행했던 것이다.

여기에 반해 고려 태조 왕건은 전체 전장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 특히 용주 서편에 있는 문경일대를 쉽게 장악하고자 용주전투를 결행하였다. 왕건은 충주와 괴산쪽에서 문경으로 연결되는 진군로 확보 및 영역 확장을 위해 이 전투를 결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전투의 기획은 왕건이 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 용주의 고려 책임자(지방관)는 곡공회(曲矜會)였음을 밝혀 보았다.

용주전투가 끝나고 불과 8개월 만인 927년 9월부터 견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 급기야 견훤은 신라도성(경주)까지 쳐들어갔다. 용주전투 패배와 이후 계속된 고려의 공격 속에서 전체 전장 판세가 후백제를 포위되는 형국이 되었다. 견훤은 이에 대한 타개책과 고려를 도운 경애왕에 대한 응징 등을 이유로 신라도성 기습을 단행하였다. 신라도성으로 쳐들어간 견훤은 경애왕을 사망하게 하고 경순왕을 새 국왕으로 내세웠다. 경애왕은 무리하게 용주전투에 참전하여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경순왕은 8년 정도 자리를 지킨 뒤에 신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경애왕이 사망한 후에 그 뒤를 이은 경순왕은 경애왕과 같은 신라 재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애왕이 사망함으로써 신라는 실질적으로 멸망한 거나 다름없었다. 경애왕은 나름 신라 재건을 위해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모아 고려 왕건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용주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경애왕의 의도는 일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어져 벌어진 결과는 처참하였다. 경애왕은 후백제 국왕 견훤에 의해 생을 마감하고 신라 멸망을 재촉시키고 말았다.

※ 이 논문은 2021년 5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기본 사료 및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장헌대왕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고종실록』, 『수서』

『한국지명총람』7(경북편IV), 한글학회, 1979.

송지향 편저, 『榮州・榮豊郷土誌』上, 驪江出版社, 1987.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한국역사연구회 중세1분과 나말여초연구반 편, 1996.

『문화유적분포지도-예천군』, 예천군·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고려사』1, 세가1』, 경인문화사, 2008.

2. 논문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용주전투와 공준의 역할」『軍史』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김상기, 「羅末地方群雄의 對中通交 -특히 王逢規를 중심으로-」『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0 :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84개정판.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郷土文化』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1995.

류영철, 「古昌戰鬪와 後三國의 政世變化」『한국중세사연구』7, 한국중세사학회, 1999.

류영철, 「曹物城싸움을 둘러싼 高麗와 後百濟」『국사관논총』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한국중세사연구』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신호철, 「신라의 멸망과 견훤」『충북사학』2, 1989.

3. 박사학위 및 단행본

- 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0.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 김명진, 『통일과 전쟁, 고려 태조 왕건』, 혜안, 2018.
-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 박종기,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신성재,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1, 경인문화사, 2014.
-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 기타 : 경상북도 의성군 홈페이지

Abstract

The Battle of Yongju for Wang Geon and the destruction of Shilla

Kim, Myeong-ji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Yongju was located around Yonggung-myeon, Yecheon-gun, Gyeongsangbuk-do, and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point.

Second, during the battle of Yongju, King Taejo Wang Geon and King Silla Kyeong-ae combined the army to defeat the forces of Hubaekje and made Yongju the territory of Goryeo.

Third, Gyeon Hwon entered the capital of Silla for the transformation and killed King Kyeong-ae. This is because King Kyeong-ae helped Goryeo-gun during the battle of Yongju. In the end, the battle of Yongju became an event urging the destruction of Silla.

keywords :

Wang Geon, Gyeon Hwon, The King of Kyeong-ae, The Battle of Yongju, The destruction of Shilla

